

성인기 애착특성과 낭만적 사랑 및 성격특성과의 관계: 성차를 중심으로

정 태 연 · 최 상 진 · 강 진 경

연세대학교 인지과학연구소 중앙대학교 심리학과 이화여자대학교 가정관리학과

본 연구는 성인기 애착의 회피와 불안이 낭만적 사랑 및 성격특성과 갖는 관련성 및 이러한 변인들에서의 성차를 알아보고자 했다. 이를 위해 270쌍의 남녀가 성인기 낭만적 애착척도, STLS 및 Big Five 성격척도에 응답하였다. 연구결과, 여자가 남자보다 불안수준이 더 높았지만 회피수준에서는 성차가 없었다. 전반적으로 STLS의 자기지각과 초지각에 성차는 없었으며, STLS의 모든 하위요인들이 회피 및 불안과 부적 상관이 있었다. Big Five에 있어서 자기지각과 초지각 점수에서 남자가 여자보다 높았지만, 이상적인 상대방에 대한 지각에 있어서는 여자들의 점수가 더 높았다. 또한, 지각유형에 상관없이 Big Five의 모든 하위요인들은 회피 및 불안과 부적상관이 있었다. 그러나, 남자의 경우 성격지각이 회피와 더 관련성이 있었지만, 여자의 경우는 자기지각과 초지각은 불안과 그리고 상대방지각과 이 상형에 대한 지각은 회피와 더 관련성이 있었다. 이러한 점들을 대인관계적 측면에서 논의하였다.

서 론

우리는 일생동안 다양한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이러한 관계의 유형과 질은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친다. 특히, 성인기에 이루어지는 사랑은 일(work)과 더불어 이 시기의 발달과업으로서 그 중요성이 강조되어 왔다(Erickson, 1950). 또한, 최근에는 사회, 발달,

임상, 상담 등 심리학의 여러 분야에서 대인관계에 대한 이론과 연구를 통해 사랑의 시작과 그 발전과정이 집중적으로 연구되고 있다. 사랑을 연구하는데 있어서 지금까지 사용된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서로 다른 유형의 사랑을 확인하여 범주화하는 것이었다(Berscheid & Reis, 1998). 많은 연구자들이 사용하는 범주화의 한가지 방법은 Bowlby(1969, 1982)의 애착이론

에 기초하고 있는데, 그들은 유아기에 양육자와 갖는 애착유형이 성인기에 이성과 맺는 애착유형에 영향을 미친다는 입장에서 성인기의 애착유형을 밝히고자 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심리측정 접근방법(psychometric approach)을 이용하여 사랑을 정의하는 것이었다. 가령, Lee(1976, 1988)와 Sternberg(1986)는 사랑의 몇몇 구성요소들을 상징하고 이 요소들의 다양한 조합으로 대부분 유형의 사랑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지난 20년 동안 이루어진 사랑에 대한 연구들은 사랑이라는 현상이 복잡하고 다양한 측면을 가지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Berscheid & Reis, 1998). 이러한 복잡성에 대한 한 가지 가능한 이유는 사랑의 전개과정 속에서 다수의 국면들이 나타나며 각 국면에 관여하는 변인들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관계의 초기단계에서는 신체적 매력, 유사성 및 친근성 등이 대인매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이러한 변인들이 밀접한 관계가 형성된 후에도 같은 방식으로 동일한 효과를 발휘하지는 않는다. 뿐만 아니라, 밀접한 관계의 시작과 유지에 관여하는 남녀간의 차이가 사랑이라는 현상의 복잡성과 다양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예로, Hendrick, Hendrick, Foote, & Slapion-Foote, 1984; Pierromonaco & Carnelley, 1994). 예를 들면, 이상적인 상대방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중요하게 고려하는 변인들이 남녀간에 차이가 있어서, 남자는 상대방의 신체적인 매력을 중시하는 반면, 여자는 상대방의 능력 등을 중시한다. 또한, 사랑에 대한 이론가들이나 연구자들이 대부분 자신들만의 개념과 분류방식을 만들어 사용하는 대신, 서로간의 비교나 의사소통의 부족 뿐만 아니라 공동의 개념을 개발하지 않음으로써 사랑에 대한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이해를 어렵게 하고 있다(Rubin, 1988). 가령, 몇몇 연구자들은 성인기의 사랑을 어린 시절 부모와의 애착 특성에 근거해서 설명하는 반면, 다른 이론가들은 성인기 사랑을 몇몇 유형으로 설명하지만, 이들이 애착 특성과 사랑유형과의 관계를 밝히거나 이 둘을 포괄하는 개념을 만들지는 않았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본 연구자들은 사랑의 복잡성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하나의 시도로서 본 연구를 수행했다. 즉, Bowlby(1969, 1982)의 이론에 근거

한 성인기의 애착 특성이 Sternberg(1986)가 제시한 사랑의 삼각형 이론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또한, 성인기의 애착특성이 그들의 성격적 특성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특히, 이러한 과정에서 남녀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탐색하였다.

성인기 애착의 특성 및 측정

발달적 관점에서 성인기 사랑의 근원을 찾고자 하는 학자들에 따르면, 대부분의 영아는 생애 초기에 주된 양육자와 강한 애착을 형성하며, 이러한 유대관계는 소위 “내적 작동모델”이라는 기제를 통해서 아동기와 성인기를 거쳐 노년기에 이르기까지 지속되는 경향이 있다(Ainsworth, 1969; Bowlby, 1958, 1973, 1979; Rothbard & Shaver, 1994). 내적 작동모델은 중요한 애착대상의 접근가능성과 반응성에 따라 결정되는 자아에 대한 모델(나는 가치 있고 사랑스러운 사람인가?)과 타인에 대한 모델(나의 애착대상은 믿을 만하고 의지할 만한가?)로 구성되며, 개인이 세상을 이해하고 행동하는 것과 관련된 인지 및 정서적 반응을 결정한다.

이러한 입장에 근거한 최근의 많은 연구들은 (Bartholomew & Horowitz, 1991; Berman & Sperling, 1991; Collins & Read, 1990; George, Kaplan & Main, 1985; Hazan & Shaver, 1987; West, Sheldon & Reiffer, 1987) 성인기 애착을 측정하는 다양한 자기보고식 도구들을 개발하였다. 먼저, Hazan과 Shaver(1987)는 단일문항의 강제선택형 자기보고식 애착척도를 개발하여 성인기 애착유형을 측정하였다. 그 결과, 이들이 예측한 대로 Ainsworth 등(Ainsworth, Blehar, Waters, & Wall, 1978)이 영아를 통해 밝힌 세 가지 유형, 즉 안정형, 회피형 및 불안/양가형의 애착유형을 확인하였다. 또한, 이들이 성인들을 대상으로 얻은 각 애착유형의 비율이 영아를 대상으로 얻은 애착유형의 비율(Campos, Barrett, Lamb, Goldsmith & Stenberg, 1983)과 매우 유사하게 나타났다.

또한, Collins와 Read(1990)는 Hazan과 Shaver(1987)의 범주척도를 기초로 18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

성인애착척도(Adult Attachment Scale: AAS)를 개발하였다. 이 척도는 대인관계가 가까워짐에 따라 느끼는 편안함 정도(친밀), 타인에 대한 의존의 정도(의존), 그리고 자신이 버림받거나 사랑 받지 못할 것에 대한 불안(불안)의 3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외에도 Simpson(1990)은 Hazan과 Shaver(1987)의 단일문항 범주척도를 기초로 안정적, 회피적 및 불안-양가적 애착유형을 측정하는 13문항의 도구를 구성하였다.

Bartholomew(1990; Bartholomew & Horowitz, 1991)는 Hazan과 Shaver(1987)의 애착유형에 대한 3범주 모델과는 대조적으로 4범주 모델을 제시하였다. 이 모델은 Bowlby(1982)의 내적 작동모델을 구성하는 두 가지 차원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즉, 그녀는 자아-모델과 타인-모델의 두 차원, “불안”과 “회피”를 각각 정적(각각 긍정적 자아개념과 신뢰로운 타인) 혹은 부정적(각각 부정적 자아개념과 믿을 수 없는 타인)으로 이분화하여 조합한 4개의 애착유형을 제시하였다.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일 때, 타인에 대해 긍정적인 경우 안정적 유형, 타인에 대해 부정적인 경우 거부적-회피 유형에 속한다. 자신에 대해 부정적일 때, 타인에 대해 긍정적인 경우 몰두된 유형, 타인에 대해 부정적인 경우 두려운-회피 유형에 속한다. Bartholomew와 Horowitz(1991)는 단일문항으로 각 애착유형을 측정하는 범주 척도를 개발하여 연구한 결과, Bartholomew(1990)의 2차원 4범주 모델과 일치하는 4가지 애착유형이 나타났다. 또한, 최근에 Brennan, Clark과 Shaver(1998)는 불안과 회피를 측정하기 위해서 다문항으로 구성된 성인기 낭만적 애착척도(Multi-item Measure of Adult Romantic Attachment)를 개발하였다.

3범주 모델보다는 4범주 모델이 성인기 애착을 더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증거가 여러 연구에서 제시되었다(장희숙, 1997, Brennan, Shaver, & Tobey, 1991). Brennan 등(1991)은 부모가 알콜중독자인 성인 자녀들에게 4범주 모델척도와 3범주 모델척도를 동시에 실시하였다. 그 결과, 4범주 척도에서 두려운-회피 유형에 속하는 사람들이 3범주 척도의 회피적 유형과 불안-양가적 유형으로 분류되는 경향이 있어 4범주 모델이 더 세분화된 구조임을 보였다. 또한, 면접을 통해 성인애착을 다룬 연구(Bakermans-Kranenburg &

van IJzendoorn, 1993; Main & Goldwyn, 1988)와 아동기 애착에 관한 연구(Main & Solomon, 1990)에서도 4범주 모델이 더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4범주 모델의 근간이 되는 두 차원, 즉 불안과 회피에 있어서 성차가 있을 수 있다. 사회화의 차이로 인해 남녀는 사회적 상황에서 서로 다른 방식으로 행동할 수 있으며 그러한 행동을 해석하는데 있어서도 차이가 있을 수 있다(Eagly, 1987; Gilligan, 1982). 예를 들면, 여자가 타인에 대한 애착과 관심을 더 지향하는 반면, 남자는 다른 사람들로부터의 분리와 개별성(individuality)을 더 지향한다(Gilligan, 1982). 또한, 사회는 여자들에게 타인과의 연결을 강조하기 때문에 자아에 대한 이들의 인식은 관계지향적인 특성을 더 반영하는 반면, 남자에게는 독자성과 개인적 성취를 강조한다(Josephs, Markus & Tafarodi, 1992; Markus & Oyserman, 1989).

이러한 입장과 일치하게, 고등학생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남자들이 여자들에 비해 개인적 성취를 대인관계보다 더 중요하게 지각했으며, 특히 고등학교 남자들이 여자보다 친밀감에 대해서 더 불편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eeney, Noller, & Hanrahan, 1994). 유사하게, 면접법에 기초한 한 연구에서는 여자가 남자보다 몰두하는 성향(불안 성향과 유사)이 높은 반면, 남자가 여자보다 거부적 성향(회피 성향)이 더 강했다(Bartholomew & Horowitz, 1991). 3범주 모델에 근거한 연구에서도 여자들이 남자들에 비해 더 타인들의 변화에 더 주의를 기울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자들의 경우에만 안정적 유형이 나머지 두 유형의 여자들보다 미래의 관계를 전반적으로 더 낙관적으로 생각했으며 이러한 차이 역시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특성에 따라 달랐다(Pietromonaco & Carnelley, 1994).

결국, 여자들은 남자들에 비해 더 관계지향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보인다. 이러한 특성은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애착의 회피경향성이 낮을 수 있음을 함축하고 있다. 또한,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데 자신에 대한 상대방의 평가가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나 불안이 자신을 평가하는데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이

다. 따라서, 애착의 불안수준은 관계지향적인 여자에게서 더 높을 수 있다. 한편, 남자들은 여자들에 비해 더 개인지향적인 경향이 강하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남자들은 여자들과는 반대로 회피수준은 높고 불안수준은 낮을 가능성이 높다. 결국, 본 연구에서는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불안수준은 높고 회피수준은 낮을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성인기 애착특성과 STLS와의 관계

Sternberg(1986)의 사랑에 대한 삼각형 이론은 사랑을 세 가지 구성요소로 개념화하는 하나의 구조적 모델이다. 즉, 이 이론은 사랑이 친밀감(intimacy), 열정(passion) 및 책임감(commitment)의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고 가정한다. 친밀감은 개인이 상대방에게 가지는 정서적 개입 즉, 심리적 가까움과 유대감 그리고 심리적 지지를 의미한다. 열정은 개인이 상대방에게 가지는 성적인 흥분을 포함해서 신체적 매력을 의미하며 관계에 대한 강력한 몰입이나 개입을 유발하는 동기적 기능을 한다. 책임감은 상대방을 사랑하기로 결심하여 지속적으로 그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인지적인 판단을 의미한다. 이에 근거하여 Sternberg(1987)는 각 요소를 측정하는 도구(Sternberg's Triangular Love Scale: STLS)를 개발하였다.

Sternberg(1986)는 사랑의 유형을 이러한 세 가지 구성요소의 유무에 따른 모든 가능한 조합 즉, 8가지로 분류하였다. 첫 번째 유형은 일상적인 대인관계처럼 세 요소가 모두 없는 경우로 이것은 사랑이 아니다(nonlove). 사랑의 또 다른 세 유형은 하나의 구성요소만 가지고 있는 경우인데, 호감유형(친밀감), 도취성 사랑(열정) 그리고 공허한 사랑(책임감)의 형태들이 존재한다. 또한, 두 개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사랑의 형태들이 있을 수 있다. 즉, 육체적인 매력과 정서가 결합된 낭만적 사랑(친밀감과 열정), 오래된 결혼생활에서 나타날 수 있는 동료애적 사랑(친밀감과 책임), 그리고 열빠진 사랑(열정과 책임감) 등이다. 마지막으로, 세 가지 구성요소가 모두 존재하는 완전한 사랑의 형태가 있을 수 있다.

비록 사랑을 개념화하는데 있어서 이론적인 접근방

법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성인기의 애착특성은 STLS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면, Levy와 Davis(1988)는 111쌍의 남녀를 대상으로 Hazan과 Shaver(1987)의 애착유형에 따른 단일문항 점수가 STLS와 어떤 상관이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 STLS의 세 요인 모두 안정적 애착 점수와 .18에서 .20까지의 정적 상관이 있었다. 또한, 이 모든 요인들은 불안/양가적 애착 점수와 -.21에서 -.24까지의 부적 상관이 있었으며, 회피적 애착 점수와도 -.24에서 -.32까지의 부적 상관이 있었다. 이러한 경향성은 친밀감, 열정 및 책임감을 RRF(Relationship Rating Form, Davis & Todd, 1982, 1985)로 측정한 경우에도 일관적으로 나타났다. 또한, STLS에서 점수가 높은 사람은 대인관계를 지속시키는데 유용한 신뢰감과 인내심 및 수용성이 높았으며 관계에 대한 부정적인 정서경험이 적어서 만족수준이 높게 나타났다(Levy & Davis, 1988).

앞에서 살펴본 연구들은 STLS의 친밀감과 열정 및 책임감이 강할수록 애착의 불안이나 회피가 약할 수 있음을 시사해 준다. 그러나, STLS의 이러한 구성요소 수준에 남녀간의 차이가 있어 보이지는 않는다. 가령, Levy와 Davis(1988)의 연구에서 연인관계에 있는 남녀 모두 9점 척도상에서 7.5점후의 높은 친밀성, 열정 및 책임감을 지니고 있었으며 남녀간의 차이는 없으므로 나타났다. 이러한 점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STLS와 애착특성간에 부적관계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으며, STLS 수준에서는 남녀간에 차이가 없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성인기 애착특성과 성격특성과의 관계

기존의 연구들은 성인기의 낭만적 사랑이 그들의 성격적 요인들과 관련이 있음을 잘 보여준다. 예를 들면, 이 연구들은 성격의 특정 요인들이 사랑의 질과 유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성격활과 관련하여 양성적인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사랑의 깊이가 깊고 상대방에 대한 인내심이 크며(Coleman & Ganong, 1985), 관계의 부정적인 측면보다는 긍정적인 측면을 더 강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Kurdek & Schmitt, 1986). 또한, 유희적인 사랑을 하는

사람들은 자극추구성향이 강해 새로운 관계를 지속적으로 추구한다(Hendrick & Hendrick, 1987). 자기검색 성향이 높은 사람(high self-monitors)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관계에 대한 몰입수준이 낮으며 관계의 지속성도 짧고, 연인을 선택할 때 상대방의 성격 특성보다는 신체적 매력을 더 강조한다(Snyder & Simpson, 1984).

앞에서 살펴본 성격의 특정 요인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성격구조도 사랑과 관련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조은혜(1996)는 사랑을 6가지 유형으로 분류하는 “사랑에 대한 태도 척도(Love Attitude Scale: LAS; Hendrick & Hendrick, 1986)와 성격의 Big Five를 측정하는 “NEO 성격검사(NEO-PI; Costa & McCrae, 1985)와의 관계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 각 사랑유형과 관련된 성격요인들이 다르게 나타났다. 가령, 열정적인 사랑은 외향성 및 개방성과 밀접하게 관련되었다. 반면, 개방성과 특히, 신경증이 소유적 사랑에 큰 영향을 미쳤다. 유희적 사랑은 신경증과 정적 상관성이 있었지만, 호감성과 성실성이 높을수록 이러한 사랑 경향성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사랑의 특성과 성격요인들간에 어떤 관련성이 있음을 시사해 준다.

또한, 기존의 연구들은 성인기의 애착 유형에 따라 타인에 대한 지각 및 그들이 가지고 있는 특정 성격 차원에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Diehl, Elnick, Bourbeau & Labouvie-Vief, 1998; Meyers, 1998). 예를 들면, Diehl 등(1998)의 연구에서 안정형의 사람들은 불안정한 유형의 사람들에 비해 자신의 가족이 생겨난 것에 대해서 그리고 현재의 가족상태를 더 긍정적으로 기술하였다. 또한, 이들은 자기확신, 심리적 안녕감, 사회적 기능을 측정하는 변인들에서 더 높은 점수를 얻었다. Meyers(1998)의 연구에서도 안정형의 사람들이 불안이나 회피형의 사람들보다 높은 개인적 유능감과 자아 존중감, 낮은 심리적 스트레스 및 부적응적인 자기비난적 방어기제 사용의 특성을 나타냈다. 이는 안정형

의 사람들이 자신과 타인의 성격을 긍정적으로 지각하고 있으며 심리적으로도 더 적응적임을 나타내준다.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성격구조도 성인기의 애착 특성과 깊이 관련될 수 있다(권아현, 2000; Shaver & Brennan, 1992). 예를 들면, 안정적 애착특성이 강할수록 Cattell의 16PF에 근거한 성격차원에서 자신 및 타인을 긍정적으로 지각하는 경향성이 강한 반면, 회피 및 불안 특성이 강한 사람은 자신과 타인의 성격을 부정적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매우 강했다(권아현, 2000). NEO-PI(Costa & McCrae, 1985)에 근거한 Shaver와 Brennan(1992)의 연구에서도 이와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다. 먼저, 애착유형을 3범주로 분류했을 때, 안정형 집단이 회피나 불안집단보다 신경증은 낮고 외향성과 호감성 수준이 높았다. 또한, 각 애착유형에 대한 점수에 근거해 볼 때, 안정적 애착특성은 신경증과는 부적으로 그리고 나머지 성격요인과는 정적으로 상관이 있었다. 그러나, 불안과 회피적 애착특성은 이와는 반대적인 특성을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긍정적인 성격특성이 높을수록 안정적인 애착특성을 나타냄을 함의한다.

이러한 결과에 근거해서 본 연구는 참가자들이 자신 및 상대방이 긍정적인 성격특성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지각할수록 이들의 애착의 회피와 불안수준이 더 낮을 것으로 예측하였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에서는 자신이나 상대방의 성격을 지각하는데 있어서 그리고 성격특성이 회피와 불안과 갖는 관계정도에 있어서 성차가 존재하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측면에서의 가능한 성차를 구체적 가설 없이 탐색적인 입장에서 살펴보았다.

방 법

참가자

현재 연애관계에 있는 540명(270쌍)의 대학생이 본 연구에 참가했다. 이들의 연령은 만 17세에서 만31세까지의 분포를 보였고 평균연령은 21.3세($SD = 2.5$)였다. 교육수준은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대졸, 대학원에

1) LAS는 성인기 낭만적 사랑을 헌신적, 소유적, 실용적, 우정적, 유희적 및 열정적 사랑 등 6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NEO-PI는 성격을 신경증, 외향성, 개방성, 호감성 및 성실성 등 5요인으로 분류하였다.

재학중인 대상의 비중이 전체의 96.4%였다. 연구대상자 자신의 한달 용돈은 평균 35.4만원($SD = 16.3$)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중하(中下) 이하가 11.5, 중(中)이 55%, 중상(中上) 이상이 33.5%로 나타나 대부분이 중상층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연인과의 교제기간은 1개월에서 11년 9개월까지의 분포를 보였는데, 전체 대상자의 46.2%의 교제기간이 6개월 이하로 가장 많았고, 평균 교제기간은 13.9개월($SD = 18.3$)로 나타났다.

측정도구

애착척도: 성인기 애착을 측정하기 위해서 Brennan 등(1998)이 개발한 성인기 낭만적 애착척도(Multi-item Measure of Adult Romantic Attachment)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성인기 애착의 기본적인 두 차원인 '회피'와 '불안'을 측정하는 총 3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에 대한 응답은 "전혀 그렇지 않다"(1)에서 "매우 그렇다"(5)까지의 5점 리커트 척도상에서 자기 보고식으로 이루어졌으며 높은 점수가 높은 애착수준을 나타낸다. Cronbach α 값으로 표시되는 신뢰도는 .88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 척도에서 얻은 점수를 연속변인으로 취급한 반면, 이에 근거해서 애착을 유형으로 분류하지는 않았다.

낭만적 사랑척도: Sternberg(1986)가 제시한 사랑의 삼각형 이론의 세 구성요소 즉, 친밀감, 열정 및 책임감을 측정하기 위해서 STLS(Sternberg, 1988)를 이용하였다. 이 척도는 각 요인별로 12문항씩 총 3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에 대한 응답은 "전혀 그렇지 않다"(1)에서 "매우 그렇다"(5)까지의 5점 리커트 척도상에서 이루어졌으며 높은 점수가 특정 요소의 높은 수준을 나타낸다. 이 척도에 대하여 두가지 유형의 평가가 이루어졌다. 먼저, 개인이 자신 또는 연인관계를 자기보고식으로 평가하는 것으로(자기지각이라 칭함), 이 평가의 신뢰도는 Cronbach α .97이었다. 또한, 상대방이 나와 연인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를 추측해서 평가하는 것으로(초지각이라 칭함), 이 평가의 신뢰도는 Cronbach α .98이었다.

성격특성척도: 참가자들의 성격특성을 측정하기 위

해서 Big Five에 대한 Goldberg(1990)의 분류체계를 이용하였다. 이 척도는 외향성(extraversion), 호감성(agreeableness), 성실성(conscientiousness), 정서 안정성(emotional stability)과 교양(culture) 등 5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각 요인은 10문항씩 총 50문항으로 되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 중에서 각 요인별로 5개를 선정하여 총 25문항을 이용하였다. 이 척도에 대하여 총 4가지 유형의 평가가 이루어졌다. 먼저, 자신의 성격을 평가하는 자기지각, 상대방의 성격을 평가하는 타인지각, 이상적인 연인에 대한 성격평가, 그리고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볼 지를 추측해서 평가하는 초지각을 측정하였다. 각 측정치에 대한 신뢰도는 각각 Cronbach α .88, .85, .84, 그리고 .87이었다.

절차

자료수집은 2000년 5월 4일에서 6월 30일까지 실시되었다. 연구대상은 서울 소재의 5개 대학교에 재학 중인 남녀 대학생들이었다. 이들은 심리학과 관련된 수업을 듣는 학생들로서 현재 연인이 있는 학생들에게 동일한 설문지 2부를 제공하였다. 또한, 이 학생들은 수업시간에 자신의 설문지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며, 나머지 하나는 상대방에게 응답하도록 하여 다음 수업시간까지 제출하도록 하였다. 이 때, 서로 간에 질문지 내용과 관련된 의사소통을 하지 말도록 요청했다.²⁾

결 과

본 연구는 대학생 커플의 애착의 회피(avoidance)와 불안(anxiety) 차원이 STLS 및 Big Five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변인과 관련하여 성차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했다. 먼저, 자료분석 결과를 볼 때 특정 변인마다 무응답의 수가 일정하지 않아 각 통계검증에 관련된 자유도의 수가 달랐다. 본 연구

2) 이러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실제 커플들간에 설문지에 관한 의사소통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존재하는데, 이러한 점을 본 연구에서는 타당하게 평가하지 못했다.

표 1. STLS에 있어서의 성차

STLS	자기지각		초지각		초지각-자기지각	
	남	여	남	여	남	여
친밀성	4.16(.59)	4.10(.57)	3.99(.63)	4.00(.63)	-.17(.41)	-.10(.41)*
열정	3.79(.67)	3.71(.66)	3.64(.68)	3.67(.71)	-.15(.56)	-.04(.58)*
책임감	3.94(.73)	3.71(.74)***	3.73(.79)	3.85(.74) ⁺	-.21(.53)	.14(.60)***

* $p < .10$. ** $p < .05$. *** $p < .001$. 측정은 5점 척도상에서 이루어졌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그 특성이 많음을 나타낸다.

참가자들의 애착의 회피($M = 2.17, SD = .54$)와 불안($M = 2.50, SD = .53$)수준은 중간보다 높지는 않았으며 이 두 변인간에는 약한 정적상관이 있었다($r = .20, p < .001$). 본 연구에서는 남자가 여자보다 회피수준이 높을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그러나, 분석결과 회피수준에서 남녀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예측한대로 불안수준에서는 남자($M = 2.46, SD = .54$)보다 여자($M = 2.55, SD = .50$)가 더 높게 나타났다 ($F_{1, 547} = 4.09, p < .05$).

STLS 및 STLS와 애착성향과의 관계에 있어서 성차

자기지각에 근거해서 볼 때, 본 연구에 참가한 커플들은 STLS의 세 하위요인, 즉 친밀성, 열정 및 책임감에서 상당히 높은 수준을 보였다(각각 $M = 4.14, 3.76$ 및 3.84). 또한, 이 세 요인간의 상관은 .84에서 .87까지 평균 .86이었다. 또한, 친밀성, 열정 및 책임감에 대한 초지각도 매우 높았으며(각각 $M = 4.00, 3.66$ 및 3.79), 세 요인들간의 상관도 모두 .88로 높았다. 또한, 각 요인별 자기지각과 초지각간의 상관은 .65에서 .77까지 평균 .70으로 나타났다. 또한, STLS의 각 하위요인에 대해서 초지각의 정확성(나의 초지각이 상대방의 나에 대한 실제지각과 일치하는 정도)을 알아보았다. 친밀성, 열정 및 책임감에서의 초지각은 남자($r = .51, .53$ 와 $.55, p < .001$)와 여자($r = .57, .55, .65, p < .001$) 모두에게 상당히 정확한 것으로 나타나, 이들은 상대방이 자신 및 그들의 관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상당히 잘 알고 있었다.

STLS에 대한 지각에 있어서 성차가 있는지를 살펴

보았다. 그 결과가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이 표에서 보듯이, 자기지각과 초지각 모두 책임감에서만 유의미한 성차가 있었는데, 자기지각에서는 남자가 여자보다 더 책임감이 높다고 보고한 반면, 초지각에서는 반대로 여자가 남자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초지각에서 자기지각을 뺀 점수에서는 모든 요인에서 성차가 있었는데, 남자의 경우 자기지각이 초지각보다 작았으며 그 차이가 여자보다 더 컸다. 즉, 남자들은 사랑의 각 차원에서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상대방이 더 낮게 자기를 지각한다고 판단했으며 이러한 경향성이 여자보다 더 강했다.

각 지각유형별로 STLS의 세 하위요인들이 애착의 회피 및 불안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가 표 2의 상단에 제시되어 있다. 이 표에서 보듯이, 자기지각과 초지각의 경우 STLS의 모든 하위요인들은 회피 및 불안과 부적 상관들이 있으며 특히, 회피와 관련해서 상관성이 더 큰 경향이 있었다. 이는 참가자들이 자신의 친밀성, 열정 및 책임감을 높다고 지각할수록, 그리고 상대방도 자신을 그렇게 지각할 것이라고 판단할수록 이들의 애착의 회피와 불안수준이 낮음을 의미한다. STLS에 대한 초지각에서 자기지각을 뺀 점수에 근거해서 볼 때, 모든 하위요인들은 회피와 약한 정적상관이, 그리고 불안과 약한 부적상관이 있었다. 이는 STLS에 대한 초지각이 자기지각보다 클수록 회피수준이 증가하고, 반대로 자기지각이 클수록 불안수준이 증가하는 약한 경향성이 있음을 함의한다.

각 지각유형별로 STLS의 세 요인이 회피 및 불안수준을 설명할 수 있는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중다상관을 계산하였다. 그 결과가 표 2의 하단에 제시되어

표 2. 각 지각유형별로 STLS와 애착성향과의 상관

STLS	자기지각		초지각		초지각-자기지각	
	회피	불안	회피	불안	회피	불안
친밀성	-.69***	-.25***	-.55***	-.30***	.12**	-.13**
열정	-.63***	-.13**	-.46***	-.26***	.16**	-.16***
책임감	-.61***	-.19***	-.50***	-.24***	.11*	-.08*
3 요인에 따른 R						
남	.72***	.29***	.56***	.31***	.21**	.18*
여	.68***	.29***	.57***	.32***	.11	.17*
전체	.70***	.29***	.56***	.31***	.16**	.17**

* p < .10. ** p < .05. *** p < .01. **** p < .001. 자기지각과 초지각은 STLS에 대한 지각 유형을 나타낸다.

있다. 이 표에서 보듯이, 성별에 상관없이 자기지각 및 초지각에 근거한 STLS의 세 요인은 회피와 높은 중다상관이 있었지만(각각 .70과 .56), 자기지각의 설명력이 더 크게 나타났다. 또한, 성별 및 지각유형에 상관없이 STLS의 세 요인은 불안과 .30 전후의 중다상관이 있었다. 초지각에서 자기지각을 뺀 점수로 회귀분석을 한 결과, STLS의 세 요인은 회피 및 불안과 각각 .16과 .17의 낮은 중다상관이 있었다. 그러나, 남자와는 달리 여자의 경우 이러한 차이점수가 회피와 유의미한 중다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격 및 성격과 애착성향과의 관계에 있어서 성차 Goldberg(1990)의 Big Five 분류체계에 근거한 성격 지각에 있어서 각 지각유형별로 남녀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가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이 표에서 보듯이, 성격에 대한 자기지각, 초지각, 그리고 상대방지각에서 외향성을 제외한 나머지 4요인에서 남자가 여자보다 더 높았으며, 호감성에 대한 상대방지각을 제외하고는 이러한 성별간 차이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즉, 남자들은 이 4요인의 성격특성을 여자보다 더 많이 갖고 있다고 스스로 지각

표 3. 성격지각에 있어서의 성차

Big Five	자기지각		초지각		상대방지각		이상형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외향성	3.53 (.79)	3.51 (.72)	3.55 (.80)	3.60 (.76)	3.62 (.71)	3.62 (.74)	3.70 (.60)	3.93*** (.49)
호감성	3.82 (.57)	3.65*** (.57)	3.83 (.60)	3.71* (.64)	3.95 (.65)	4.04 (.60)	4.42 (.45)	4.38 (.41)
성실성	3.49 (.65)	3.30*** (.67)	3.43 (.71)	3.23** (.70)	3.32 (.62)	3.62*** (.60)	3.60 (.56)	3.75*** (.50)
정서 안정성	3.30 (.67)	3.02*** (.67)	3.37 (.63)	3.04*** (.72)	3.33 (.70)	3.58*** (.60)	3.88 (.51)	3.94 (.40)
교양	3.86 (.63)	3.67*** (.60)	3.75 (.61)	3.58** (.63)	3.74 (.54)	3.86* (.53)	4.04 (.53)	4.19*** (.49)

* p < .05. ** p < .01. *** p < .001. 측정은 5점 척도상에서 이루어졌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그 특성이 많음을 나타낸다. ()에는 숫자는 표준편차임.

하고, 상대방 여자도 그렇게 지각할 것이라고 추측하며, 실제로 여자들도 자신보다는 남자 파트너가 이러한 특성을 더 많이 가지고 있다고 지각했다. 그러나, 이상적인 파트너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는 모든 요인에서 여자가 남자보다 더 높았으며, 이 중 3요인에서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마지막으로, Big Five 지각에 있어서 초지각의 정확성을 측정하였다. 그 결과, 교양을 제외한 나머지 4개의 요인에서 상당히 높은 정확성을 보였으며, 특히 외향성에 대한 초지각의 정확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남자: $r = .66, .38, .41, .48, .29, p < .001$, 여자: $.54, .48, .42, .50, .28, p < .001$).

또한, 지각유형별 차이점수에서 성차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가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이 표에서 보듯이, 초지각에서 자기지각을 뺀 점수는 모든 성격차원에서 절대값으로 .10보다 작아 정서 안정성을 제외한 모든 요인에서 유의미한 성차가 없었다. 그러나, 외향성을 제외한 4개의 성격요인에서 상대방 지각에서 자기지각을 뺀 점수가 남자보다 여자의 경우에 더 컸다. 이는 여자들이 이러한 성격차원에서 상대방을 자신보다 더 높게 평가함을 의미한다. 이상형에서 상대방지각을 뺀 점수들이 5개 성격요인에 걸쳐 남녀 모두에게 정적인 것으로 나타나, 이들은 이상적인 파트너에게서 현재의 상대방보다 더 높은 특질수준을 요구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교양을 제외한 4개의 요인에서의 이러한 경향성이 남자에게서 더 강하게 나타났다.

각 지각유형별로 성격특성이 애착의 회피 및 불안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가 표 5 상단에 제시되어 있다. 이 표에서 보듯이, 지각유형에 상관없이 Big Five의 모든 하위요인들은 애착의 회피 및 불안과 부적인 상관이 있어서, 각 성격요인에서 특질수준이 높을수록 회피와 불안수준이 낮은 경향성을 보였다. 그러나, 각 성격특성이 애착성향과 갖는 상관정도가 성격요인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또한 지각유형에 따라서도 그 관련정도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가능성을 살펴보기 위해서 모든 4개의 지각유형에 걸쳐 측정된 각 성격요인(predictors)이 회피 및 불안(criterion)과 갖는 중다상관을 계산하였다. 그 결과가 이 표의 오른쪽에 제시되어 있다. 여기에서 보듯이, 호감성이 회피와 가장 큰 중다상관이 있었으며($R = .38$) 나머지 요인들은 .22에서부터 .28까지의 중다상관이 있었다. 불안의 경우에는 정서적 안정성이 가장 높은 중다상관이 있었으며($R = .36$) 그 다음 호감성, 성실성 순으로 높은 중다상관이 있었으며, 외향성과 교양이 가장 낮은 중다상관이 있었다($R = .17$).

각 지각유형별로 성격과 애착성향과의 관련정도 역시 다를 수 있어서, 회피와 불안을 각각 준거변인(criterion)으로 하고 Big Five의 모든 하위요인들을 예측변인(predictors)으로 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가 표 5 하단에 제시되어 있다. 이 표에서 보듯이, 자기지각과 초지각에 따른 성격특성은 회피 및 불안과 .33에서부터 .38까지 비슷한 수준의 중다상

표 4. 성격에 대한 지각유형간 차이에 있어서의 성차

Big Five	초지각-자기지각		상대방지각-자기지각		이상형-상대방지각	
	남	여	남	여	남	여
외향성	.06(.53)	.05(.52)	.11(.97)	.09(.95)	.05(.67)	.30(.74)***
호감성	.02(.46)	.06(.52)	.14(.72)	.39(.69)***	.47(.66)	.34(.57)*
성실성	-.06(.52)	-.04(.47)	-.17(.82)	.35(.84)***	.28(.70)	.14(.63)*
정서 안정성	.09(.47)	.00(.50)*	.05(.87)	.55(.85)***	.57(.71)	.36(.64)***
교양	-.05(.46)	-.08(.47)	-.07(.74)	.20(.68)***	.30(.56)	.33(.56)

* $p < .10$. * $p < .05$. ** $p < .01$. *** $p < .001$. 측정은 5점 척도상에서 이루어졌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그 특성이 많음을 나타낸다.

표 5. 지각유형에 따른 성격이 애착성향과 갖는 상관

Big Five	자기지각		초지각		상대방지각		이상형		각 요인별 R	
	회피	불안	회피	불안	회피	불안	회피	불안	회피	불안
외향성	-.26***	-.17***	-.17***	-.10*	-.09 ⁺	-.11*	-.12**	-.06	.23***	.17*
호감성	-.29***	-.29***	-.33***	-.21***	-.30***	-.22***	-.21***	-.12**	.38***	.30***
성실성	-.10*	-.24***	-.02	-.13**	-.19***	-.09 ⁺	-.12**	-.05	.22***	.26***
정서 안정성	-.16***	-.34***	-.11*	-.33***	-.21***	-.11*	-.14**	-.13**	.28***	.36***
교양	-.17***	-.14***	-.11*	-.12*	-.25***	-.17***	-.17***	-.06	.26***	.17*

5 요인에 따른 R

남	.37***	.37***	.41***	.26*	.34***	.20	.27**	.17
여	.29***	.39***	.31***	.41***	.44***	.37***	.24*	.16
전체	.33***	.38***	.35***	.33***	.34***	.25***	.24***	.14 ⁺

* p < .10. * p < .05. ** p < .01. *** p < .001. 자기지각, 초지각, 연인지각과 이상형은 Big Five에 대한 지각 유형을 나타낸다.

표 6. 성격에 대한 지각유형간 차이점수가 애착성향과 갖는 상관

Big Five	초지각-자기지각		상대방지각-자기지각		이상형-상대방지각	
	회피	불안	회피	불안	회피	불안
외향성	.05	.07	.11*	.04	.01	.09 ⁺
호감성	-.11*	.06	-.05	.05	.16***	.13**
성실성	.08*	.12*	-.04	.12*	.07	.03
정서 안정성	.07	-.02	-.04	.17***	.09 ⁺	.00
교양	.05	-.03	-.05	-.02	.11*	.10*

5 요인에 따른 R

남	.31***	.28**	.14	.21	.18	.22 ⁺
여	.12	.08	.29**	.25*	.28**	.25*
전체	.19**	.17*	.15	.22***	.18*	.20**

* p < .10. * p < .05. ** p < .01. *** p < .001. 각 지각유형간의 차이점수는 Big Five와 관련된 점수이다.

관이 있었다. 상대방지각과 이상형지각에 따른 성격 특성은 불안보다는 회피와 더 큰 중다상관이 있었으며, 이상형보다는 현재 상대방의 성격이 불안 및 회피와 더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경향성에 성차가 있어 보인다. 남자의 경우 자기지각과 초지각에 따른 성격특성은 불안보다는 회피와 더 크게 관련되는 반면 여자의 경우에는 그 반대인 경향

이 있었다. 또한, 상대방의 성격지각이 남자에 비해 여자의 경우 회피 및 불안과 더 크게 관련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성격특성에 있어서 지각유형별 차이점수가 회피 및 불안과 어떠한 상관이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가 표 6에 제시되어 있다. 이 표에서 보듯이 대부분 상관의 크기가 매우 작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그러나, 한 가지 특기할 만한 사실은 성격차원들에서 상대방지각에서 자기지각을 뺀 점수가 회피와는 전반적으로 부적상관이 그리고 불안과는 정적상관이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상관들이 대부분 통계적으로 유의미할 정도로 크지는 않았지만, 자신보다 상대방의 특질수준이 높을수록 애착에 대한 회피경향성이 약하고 불안경향이 강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지각유형별 차이점수에 근거해서 성격의 5개 하위요인들이 회피 및 불안과 어떠한 중다상관이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가 표 6 하단에 제시되어 있다. 이 표에서 보듯이, 전체적으로 성격특성이 회피 및 불안과 갖는 중다상관의 크기는 .15에서부터 .22까지 분포하고 있었다. 또한, 상대방지각에서 자기지각을 뺀 점수만이 회피보다는 불안과 더 큰 중다상관이 있었으며, 나머지 지각유형별 차이점수에서는 이러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이러한 경향성에서 성차가 있어 보인다. 즉, 남자의 경우에 한해서 초지각에서 자기지각을 뺀 점수가 회피 및 불안과 .30 전후의 중다상관이 있었다. 반대로, 상대방지각에서 자기지각을 뺀 점수는 여자의 경우에 한해서 회피 및 불안과 .30 미만의 중다상관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남자의 경우에는 이상형에서 상대방지각을 뺀 점수가 불안과 유의미한 중다상관이 있었지만, 여자의 경우는 불안 뿐만 아니라 회피성향도 유의미한 중다상관이 있었다.

논 의

본 연구는 현재 연애중인 대학생 커플을 대상으로 성인기 애착특성이 낭만적 사랑 및 성격특성과 어떠한 관련이 있으며, 이러한 변인들과 관련해서 성차가 존재하는지를 탐색하였다. 그 결과, 여자가 남자보다 불안수준이 더 높았지만 회피수준에서는 성차가 없었다. 전반적으로 STLS의 자기지각과 초지각에서 성차는 없었으며, STLS의 모든 하위요인들이 회피 및 불안과 부적 상관이 있었다. Big Five에 있어서 자기지각과 초지각 점수에서 남자가 여자보다 높았지만, 이상적인 상대방에 대한 지각에 있어서는 여자들의 점수가 더 높았다. 또한, 지각유형에 상관없이 Big Five

의 모든 하위요인들은 회피 및 불안과 부적상관이 있었다. 그러나, 남자들의 경우 자기지각이나 초지각처럼 자신이 주(主)가 되는 지각은 여자들에 비해 더 크게 회피와 관련되어 있었다. 그러나, 여자들의 경우 남자들에 비해 상대방과 관련된 지각이 불안과 더 크게 관련되어 있었다. 본 절에서는 이러한 결과를 논의하겠다.

애착특성에서의 성차

성인기 애착의 특성에 있어서 남녀차가 존재할 수 있는데, 이러한 차이에 대한 한 설명에 따르면, 사회화의 차이로 인해 남녀는 대인관계에서 서로 다른 특성을 보인다(Eagly, 1987). 가령, 남자는 대인관계보다는 독자성과 개인적 성취를 지향하는 반면, 여자는 관계지향적인 특성이 강하여 타인들의 변화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을 보인다(Gilligan, 1982; Josephs et al., 1992; Markus & Oyserman, 1989; Pietromonaco & Carnelley, 1994). 기존의 몇몇 연구들도 이러한 설명에 부합하는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다. 즉, 남자는 여자보다 회피성향이 높고 여자는 남자보다 불안수준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Bartholomew & Horowitz, 1991; Feeney et al., 1994). 본 연구도 이에 근거하여 남자가 여자에 비해 회피경향이 강하며, 반대로 여자는 남자에 비해 불안경향이 강할 것이라고 기대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예측은 부분적으로만 지지되었다. 회피수준에는 남녀간에 차이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비록 여자의 불안수준($M = 2.55$)이 남자($M = 2.46$)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았지만 그 차이 역시 미미했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화의 차이가 성인기 애착에 있어서의 남녀차이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하더라도 크지 않을 가능성을 시사해 준다. 즉, 회피경향은 단순히 독자성과 개별성에 의해서 결정된다거나 불안경향은 관계지향적 특성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 같지는 않다. 이 두 변인간의 정적 상관이 함축하는 바처럼, 회피경향 역시 관계지향적인 측면에 의해서 결정될 수 있다. 가령, 많은 연구들은 사랑에 있어서 남자보다는 여자가 덜 낭만적이며 더 실용주의적임을 보고하고 있다(Dion & Dion, 1973; Harkoff & Lasswell, 1979). 이

러한 점을 기능주의적인 입장에서 보면, 남자에 비해 여자는 상대방을 선택함에 있어서 자신을 보호해 주고 필요한 요구들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지의 여부가 중요한 기준이 된다. 결국, 여자는 상대방을 선택함에 있어서 그가 이러한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주의 깊게 검증해 볼 필요가 있으며, 부적합한 상대방을 거부 혹은 회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회피경향이 관계지향적인 맥락 속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도 이러한 점을 함축해 준다. 표 5에서 보듯이, 여자의 경우 상대방의 성격특성에 대한 지각이 회피경향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즉, 여자들은 Big Five의 각 요인에서 낮은 수준을 보이는 남자를 회피하는 경향성이 강했다($R = .44$). 마찬가지로, 여자들은 Big Five 요인에서 낮은 수준을 보이는 사람을 이상적인 상대방으로 생각하지 않아 회피하는 경향이 있었다($R = .24$). 이러한 경향성은 남자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났다(각각 $R = .34$ 와 $.27$). 이는 회피가 단지 관계로부터 분리되어 독자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만 볼 수 없음을 시사한다.

비슷한 맥락에서, 여자뿐만 아니라 남자의 경우에도 불안이 자신에 대한 성격지각과 특히 초지각 즉,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한 지각과 관련되어 있었다. 표 5에서 보듯이, 남녀 모두 Big Five 차원에서 자신을 낮게 평가할수록 불안수준이 높았다(각각 $R = .37$ 과 $.39$). 또한, 초지각도 남녀 모두에게 자기지각과 동일한 형태로 불안과 관련되어 있었다(각각 $R = .26$ 과 $.41$). 이러한 결과는 불안이 여자뿐만 아니라 남자에게서도 자신과 관련된 지각, 특히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한 평가와 밀접하게 관련될 수 있음을 함축한다.

결론적으로, 애착의 회피와 불안에 있어서의 성차가 서로 다른 사회화, 즉 관계지향적 대 개인지향적 차이로 인해 나타날 수 있지만, 그 차이가 매우 큰지는 불분명하다. 대신에, 본 연구의 성격지각에 대한 결과로 볼 때, 애착성향이 남녀 모두 비슷하게 나타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특성에 있어서도 상대방 및 자신과 관련된 지각에 있어서의 차이에 영향

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즉 개인차가 크게 존재할 수 있어 보인다.

애착특성과 낭만적 사랑과의 관계

본 연구에서는 성인기 애착특성이 STLS로 측정된 낭만적 사랑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먼저, 본 연구에 참가한 연인들은 STLS의 점수로 볼 때 남녀 모두 서로 간에 친밀감과 열정 그리고 책임감이 매우 높다고 보고했다(표 1 참고). 또한, 남녀 모두 상대방도 나를 그렇게 생각할 것이라고 추측하였으며 이러한 추측은 상당히 정확했다. 이는 놀라운 결과가 아니다. 사랑의 가장 보편적인 원리라고 할 수 있는 상호성 측면에서 보면, STLS의 하위차원에서 남녀 모두가 동일하게 높은 특성을 가지고 있을 때 안정적이며 균형적인 관계라 할 수 있다. 또한, 관계가 밀접할수록 관계와 관련된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상대방에게 잘 드러내는 경향(Altman & Taylor, 1973)을 고려해 볼 때, 이러한 자기개방성은 남녀 모두에게 초지각의 정확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

STLS에 대한 지각에 있어서 특기할 만한 사항은 남자의 경우에 초지각이 자기지각보다 더 작았으며 이러한 차이가 여자에 비해 더 크게 나타났다는 것이다(표 1 참고). 또한, 이러한 차이는 회피성향과 정적인 상관관이 있었다. 즉,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상대방이 STLS에서 자기를 더 높게 평가한다고 생각할 때, 그 상대방을 회피하고자 하는 경향성이 있었다($R = .16$). 특히, 이러한 경향성은 여자보다 남자에게서 더 강하게 나타났다(각각 $R = .11$ 과 $.21$). 이것에 대한 가능한 설명은 남자들의 경우 상대방이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과대하게 자기를 평가할 때 그 관계에 대해 심리적 부담감을 느낌으로써 회피하고자 하는 경향을 나타낼 수 있다. 반대로, 이 두 지각유형간의 차이는 남녀 모두에게 불안과 부적으로 관련되어 있었다. STLS의 각 차원의 특성을 보면, 개인이 자기를 생각하는 것보다 상대방이 더 높게 평가한다는 것은 그 상대방이 자신을 긍정적으로 여기고 있음을 함축한다. 따라서, 자기지각보다 초지각이 클수록 불안은 감소할 수 있다.

기존의 연구에서처럼(Davis & Todd, 1982, 1985; Levy와 Davis, 1988), 본 연구에서도 STLS는 애착의 회피 및 불안과 부적상관이 있었다(표 2 참고). 즉, 친밀감이나 열정 및 책임감이 강할수록 대인관계에 대한 회피나 불안특성이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성인기 사랑을 개념화하고 측정하는 방식이 다르다 하더라도 그 결과는 상당히 일관적임을 시사해 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관의 정도가 애착의 하위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즉, 기존의 연구에서처럼(Hazan & Shaver, 1987), STLS의 하위척도들은 불안보다는 회피와 더 강한 부적상관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서 친밀감이나 열정 및 책임감은 자신을 대상으로 해서 나타나는 특성이라기 보다는 상대방이나 상대방과의 관계에 대한 자신의 특성을 더 많이 드러내는 개념들이다. 즉, 상대방에 대한 나의 친밀감이나 열정 및 책임감을 나타낸다. 애착의 두 가지 특성 즉, 회피와 불안은 비록 서로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모두 상대방이나 그와의 관계에 따른 특성을 반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은 회피보다 더 자신을 판단의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평가인 반면, 회피는 불안보다 더 상대방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평가일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STLS가 불안보다는 회피와 더 밀접하게 관련된다고 볼 수 있다.

이외 본 연구결과는 STLS의 세 하위요인들간의 변별타당도(discriminant validity)에 의문을 제기해 준다. 자기지각과 초지각 각각의 경우, 친밀감, 열정 및 책임감간의 상관이 .85이상이었다. 기존의 연구도 이와 비슷한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Levy & Davis, 1988). 뿐만 아니라, STLS의 각 하위요인에 대한 지각에 있어서 요인별로 큰 차이가 없어 보인다(표 1 참고). 또한, 각 하위요인이 애착의 회피 및 불안과 갖는 상관관계가 요인간에 매우 비슷했다(표 2 참고). 이러한 점들은 STLS의 세 요인들이 실질적으로 사랑의 비슷한 특성을 중복해서 측정하고 있음을 시사해 준다.

애착특성과 성격특성과의 관계 및 성차

본 연구에서는 Big Five의 대부분 요인에서 남녀 모두 높은 수준을 보였지만, 남자들의 점수가 여자들보

다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표 3과 4 참고). 즉, 남자들은 자기 스스로를 성격특질 수준에서 여자보다 더 높다고 지각하고, 여자 파트너도 그렇게 지각할 것이라고 추측하며, 실제로 여자들도 자신보다는 남자 파트너가 이러한 특성을 더 많이 가지고 있다고 지각했다. 또한, 이러한 초지각은 상당히 정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점들은 연인관계에 있는 남녀 모두가 성격특질 수준에서 남자가 높다고 지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상적인 파트너의 성격특질과 관련해서 여자가 남자보다 Big Five에서 더 높은 수준을 요구했다. 일반적으로, 성격특성수준은 사회적 바람직성과 관련이 되며(Jung & Kenny, 2000), 본 연구에서 사용한 특질에서는 높은 수준을 얻을수록 더 바람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자신 및 상대방의 성격특질수준을 높게 지각한 것은 평가대상자를 더 긍정적으로 지각하려는 경향성에 근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이상적인 상대방에 대한 지각도 이러한 사회적 바람직성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기존의 연구에서처럼(권아현, 2000; Shaver & Brennan, 1992), 성격에 대한 지각은 지각유형에 상관없이 성인기 애착의 회피 및 불안과 부적으로 관련되어 있었다(표 5 참고). 결국, 성인의 전반적인 성격구조에 따라 그들의 애착특성들이 달라질 수 있다. 이는 아동기의 부모-자녀 애착유형이 성인기로 이행되는 과정에서 성격구조적인 측면에서의 상호작용을 동반할 수 있음을 시사해 준다. 또한, 각 요인별로 볼 때, 회피는 호감성과 가장 큰 상관이 있었으며, 불안은 정서적 안정성과 가장 강한 관련이 있었다. 이는 대인관계의 상호성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성격요인이 호감성이라는 기존의 연구와 매우 일치한다(Kenny, 1994). 가령, 타인과의 관계 형성과 유지를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성격요인이 호감성이라는 점에서 이 요인이 회피와 큰 상관이 있다는 점은 당연해 보인다. 마찬가지로, 애착의 불안은 주로 자신에 관한 정서적인 측면을 많이 반영하기 때문에 성격의 정서적 안정성과 밀접하게 관련될 수 있다.

이러한 전반적인 특성에도 불구하고, Big Five 지각유형이 애착특성과 갖는 관계에 있어서 성별에 따라

지각유형의 차이가 다르게 나타났다(표 5 참고). 전반적으로, 자기지각과 초지각이 회피와 갖는 상관은 여자에 비해 남자의 경우에 더 컸고, 불안과 갖는 상관은 여자의 경우에 더 컸다. 대신에, 이상적 및 현재의 상대방에 대한 성격지각은 남녀 모두에게 불안보다는 회피와 더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었다. 이는 남녀 모두 상대방에 대한 지각을 통해 그 상대방과의 관계를 거부할지의 여부를 결정하고 있음을 시사해 준다. 그러나, 자신이 주로 관련된 지각(자기지각과 초지각)이 남자의 경우 여자에 비해 회피적인 요인과 관련되는 반면, 여자의 경우 이러한 지각이 불안과 더 관련된다. 특히, 여자의 경우, 상대방이 자신을 어떻게 볼 것인가가 불안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 보인다. 이는 남자의 경우 파트너와의 관계를 거부할 지에 대한 증거로서 상대방 뿐만 아니라 자신과 관련된 지각이 이용되지만, 여자의 경우는 상대방에 대한 지각이 주로 이용된다. 대신에, 여자의 경우 자신에 대한 지각은 상대적으로 자신에 대한 불안수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Big Five에 대한 지각적 유형간의 차이 점수 및 이러한 차이점수가 회피 및 불안과 갖는 상관에서 남녀간에 차이가 있었다(표 4와 6 참고). 초지각과 자기지각은 서로 비슷했지만, 여자들이 자신보다는 상대방이 더 높은 성격특질수준을 가지고 있다고 지각했다. 이상형에 대한 지각에서 현재 상대방에 대한 지각을 뺀 점수의 차이는 남자에게서 더 크게 나타났다. 결국, 남자의 경우 현재 사귀는 여자가 Big Five 차원에서 더 높은 수준을 갖기를 원하지만, 그 절대적인 수준이 여자가 남자에게 원하는 수준보다는 높지 않았다. 또한, 남자보다는 여자가 파트너가 생각하는 이상형 기준을 상대적으로 덜 충족시킴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남자의 회피나 불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즉, 이러한 차이점수에 근거한 회귀분석 결과, 초지각에서 자기지각을 뺀 차이점수는 남자의 경우에만 회피 및 불안과 관련이 있었다. 반면 상대방지각에서 자기지각을 뺀 차이점수나 이상형 지각에서 현재의 파트너에 대한 지각을 뺀 점수는 대부분 여자의 경우에만 회피 및 불안과 상관이 있었다.

이러한 결과들은 종합적으로 남자의 경우 자신과 관련된 성격지각유형이 애착특성과 더 연계되어 있는 반면, 여자의 경우는 상대방과 관련된 성격지각이 회피나 불안과 더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시사해 준다. 즉, 애착과 관련해서 남자가 여자에 비해 더 자기 중심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반면, 여자는 더 타인 중심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음을 암시한다. 이는 기존에 애착의 남녀차를 사회화의 차이로 설명한 연구들과 그 맥을 같이한다고 하겠다. 그러나, 본 연구는 남녀차이가 단지 관계지향적이나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 속에서 어떤 측면을 강조하느냐의 차이임을 강조한다.

20대 연령대에 국한해서 지금까지 살펴 본 애착특성과 관련된 성차가 여러 연령대에 걸쳐서 나타나는 매우 안정적인 현상인지 살펴보기 위해 장기종단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연구는 여러 연령대에 걸쳐서 애착특성 및 이와 관련된 성격특성에 있어서의 남녀간의 차이에 대한 패턴을 정확히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더불어, 낭만적 사랑관계의 기간에 따른 장기종단연구도 필요하다. 가령, 앞서 언급한 것처럼, STLS의 세가지 요인의 수준이 매우 높고 이들간의 상관도 매우 높다. 이러한 결과는 낭만적 관계의 초기단계에서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장기종단 연구는 낭만적 관계의 패턴을 보여주기 때문에, STLS 요인들의 변화도 제시해 준다. 또한, 특정 성격특성이나 성격특성의 지각유형이 관계의 지속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러한 장기종단연구는 보여줄 수 있다.

결 론

본 연구는 성인기 애착특성이 낭만적 사랑 및 성격특성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전반적으로 애착의 불안과 회피는 STLS의 친밀감, 열정 및 책임감과 부적적으로 관련되어 있으며, Big Five의 모든 하위요인들과도 부적 상관이 있었다. 이러한 전반적인 결과에도 불구하고, 특히 성격지각에 있어서 남녀간에 차이가 있었다. 남자의 경우 자신과 관련된 성격지각유형(자기지각과 초지각)이 회피와 주로 관련

된 반면, 여자의 경우 이러한 지각은 불안과 더 관련되어 있었다. 또한, 남자와는 달리 여자들의 경우 상대방에 대한 성격지각이 회피 및 불안과 관련되어 있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연인관계에서 남자는 상대적으로 더 자기중심적이고 회피중심적인 특성을 보이는 반면, 여자는 상대방중심적이고 불안중심적인 특성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권아현(2000). 애착유형에 따른 자기상이 대인지각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장휘숙(1997). 성인애착의 3범주 모델과 4범주 모델의 비교.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0(2), 123-138.
- 조은혜(1996). 성격과 사랑유형간의 관계: 사랑유형 척도의 타당화.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Ainsworth, M. D. S.(1969). Object relations, dependency and attachment: A theoretical review of the infant-mother relationship. *Child Development*, 40, 969-1025.
- Ainsworth, M. D. S., Blehar, M. C., Waters, S., & Wall, S. (1978). *Patterns of attachment: A Psychological study of the strange situation*. Hillsdale, NJ: Erlbaum.
- Bakermans-Kranenburg, M. J. & Van IJzendoorn, M. H.(1993). A Psychometric study of the Adult Attachment Interview: Reliability and discriminant validity. *Developmental Psychology*, 29, 870-879.
- Bartholomew, K., & Horowitz, L. M.(1991). Attachment styles among young adults: A test of a four-category model.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1, 226-244.
- Bartholomew, K. (1990). Avoidance of intimacy: An attachment perspective.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7, 147-178.
- Berman, W. H. & Sperling, M. (1991). Attachment and distress in the transition to colleg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0, 427-440.
- Berscheid, E., & Reis, H. T. (1998). Attraction and close relationships. In D. T. Gilbert, S. T. Fiske, & C. Lindzey (Eds.), *The handbook of social psychology* (Vol. 2, pp. 193-281).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Bowlby, J. (1958). The nature of the child's tie to his mother.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analysis*, 39, 350-373.
- Bowlby, J. (1969). *Attachment and loss: Vol. 1. Attachment*. New York: Basic Books.
- Bowlby, J. (1973). *Attachment and loss: Vol. 2. Separation: Anxiety and anger*. New York: Basic Books.
- Bowlby, J. (1979). *The making and breaking of affectional bonds*. London: Tavistock.
- Bowlby, J. (1982). *Attachment and loss: Vol. 1. Attachment*(2nd Ed.). New York: Basic Books.
- Brennan, K. A., Clark, C. L., & Shaver(1998). Self-report measurement of adult romantic attachment: An integrative overview. In J. A. Simpson & W. S. Rholes (Eds.), *Attachment theory and close relationships* (pp. 46-76). New York: Guilford Press.
- Brennan, K. A., Shaver, P. R., & Tobey, A. E.(1991). Attachment styles, gender, and parental problem drinking.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8, 451-466.
- Campos, J. J., Barrett, K. C., Lamb, M. E., Goldsmith, H. H., & Stenberg, C. (1983). Socio-emotional development. In M. M. Haith & J. J. Campos (Eds.),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Vol. 2. Infancy and psychobiology* (pp. 783-915). New York: Wiley.
- Coleman, M., & Ganong, L. H. (1985). Love and sex role stereotypes: Do macho men and feminine women make better lover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9, 170-176.
- Collins, N. L., & Read, S. J.(1990). Adult attachment, working models, and relationship quality in dating coupl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8, 644-663.
- Costa, P. T., Jr., & McCrae, R. R. (1985). *The NEO*

- Personality Inventory*. Odessa, FL: Psychological Assessment Resources.
- Davis, K. E., & Todd, M. J. (1982). Friendship and love relationships. In K. E. Davis & T. O. Mitchell (Eds.), *Advances in descriptive psychology (Vol. 2)*. Greenwich, CT: JAI.
- Davis, K. E., & Todd, M. J. (1985). Assessing friendship : Prototypes, paradigm cases and relationship assessment. In S. W. Duck & D. Perlman (Eds.), *Understanding personal relationships: An interdisciplinary approach (pp. 17-34)*. Beverly Hills, CA: Sage Publications.
- Diehl, M., Elnick, A. B., Bourbeau, L. S., & Labouvie-Vief, G. (1998). Adult attachment styles: Their relations to family context and personali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4*, 1656-1669.
- Dion, K. K., & Dion, K. L. (1973). Personality, gender, and the phenomenology of romantic love. In P. Shaver (Ed.) *Review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6, pp. 51-56): Self, situations, and social behavior*. Beverly Hills: Sage.
- Eagly, A. (1987). *Sex differences in social behavior: A social role interpretation*. Hillsdale, NJ: Erlbaum.
- Erickson, E. H. (1950). *Childhood and society*. New York: Norton.
- Feeney, J. A., Noller, P. & Hanrahan, M. (1994). Assessing adult attachment. In M. B. Sperling & W. H. Berman(Eds.), *Attachment in adults - clinical and developmental perspectives*(p. 128-152). New York: Guilford Press.
- George, C., Kaplan, N., & Main, M. (1985). *The adult attachment interview: Interview protocol*. Unpublished manuscript, Department of Psychology,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 Gilligan, C. (1982). *In a different voice: Psychological theory and women's development*.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Goldberg, L. R. (1990). An alternative "description of personality": The Big-five factor structur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9*, 1216-1229.
- Hatkoff, S., & Lasswell, T. E. (1979). Male-femal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in conceptualizing love. In M. Cook and G. Wilson (Eds.), *Love and attraction: An international conference (pp. 221-227)*. Oxford: Pergamon.
- Hazan, C., & Shaver, P. R. (1987). Conceptualizing romantic love as an attachment proc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2*, 511-524.
- Hendrick, C., & Hendrick, S. S. (1986). A theory and method of lov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0*, 392-402.
- Hendrick, C., Hendrick, S. S., Foote, F. H., & Slapion-Foote, M. J. (1984). Do men and women love differently?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1*, 177-195.
- Hendrick, S. S., & Hendrick, C. (1987). Love and sexual attitude, self-disclosure and sensation seeking.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4*, 281-297.
- Josephs, R. A., Markus, H. R., & Tafarodi, R. W. (1992). Gender and self-estee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3*, 391-402.
- Jung, T., & Kenny, D. A. (2000). *An examination of moderator variables of agreement on the basis of target standing*. Unpublished manuscript. University of Connecticut.
- Kenny, D. A. (1994). *Interpersonal perception: Social relations analysis*. New York: Guilford.
- Kurdek, L. A., & Schmitt, J. P. (1986). Interaction of sex role self-concept with relationship quality and relationship beliefs in married, heterosexual cohabiting, gay, and lesbian coupl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 365-370.
- Lee, J. A. (1976). *The colors of love*. New York: Bantam.
- Lee, J. A. (1988). *Love-styles*. In R. J. Sternberg & M. L. Barnes (Eds.), *The anatomy of love (pp. 38-67)*.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 Levy, M. B., & Davis, K. D. (1988). Love styles and attachment styles compared: Their relations to each other and to various relationship characteristics.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5*, 439-471.
- Main, M., & Goldwyn, R. (1988). Love styles and attachment styles compared: Their relations to each other and to various relationship characteristics.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5*, 439-471.
- Main, M., & Solomon, J. (1990). Procedures for identifying infants as disorganized/disoriented during the Ainsworth Strange Situation. In M. T. Greenberg, D. Cicchetti, & E. M. Cummings (Eds.), *Attachment in the preschool years: Theory, research and intervention*.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Markus, H., & Oyserman, D. (1989). Gender and thought: The role of the self-concept. In M. Crawford & M. Hamilton (Eds.), *Gender and thought* (pp. 7-12). New York: Wiley.
- Meyers, S. A. (1998). Personality correlates of adult attachment style. *The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38*, 407-409.
- Pietromonaco, P. R., & Carnelley, K. B. (1994). Gender and working models of attachment: Consequences for perceptions of self and romantic relationships. *Personal Relationships, 63-82*.
- Rothbard, J. C., & Shaver, P. R. (1994). Continuity of attachment across the life span. In M. B. Sperling & W. H. Berman (Eds.), *Attachment in adults: Clinical and developmental perspectives* (pp. 31-71). New York: Guilford.
- Rubin, Z. (1988). Preface. In R. J. Sternberg & M. L. Barnes (Eds.), *The anatomy of love* (pp. vii-xii).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 Shaver, P. R., & Brennan, K. A. (1992). Attachment styles and the "Big Five" personality traits: Their connections with each other and with romantic relationship outcome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18*, 536-545.
- Simpson, J. A. (1990). Influence of attachment styles on romantic relationshi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9*, 971-980.
- Snyder, M., & Simpson, J. A. (1984). Self-monitoring and dating relationshi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7*, 1281-1291.
- Sternberg, R. J. (1986). A triangular theory of lov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3*, 119-135.
- Sternberg, R. J. (1987). Liking versus loving: A comparative evaluation of theories. *Psychological Bulletin, 102*, 331-345.
- West, M., Sheldon, A., & Reiffer, L. (1987). An approach to the delineation of adult attachment: Scale development and reliability. *Journal of Nervous and Mental Disease, 175*, 738-741.

Relations of Adult Attachment with Romantic Love and Personality Traits

Taeyun Jung^{*} · Sang-Chin Choi^{**} · Jean Kyung Kang^{***}

Center for Cognitive Science, Yonsei University^{*}

Department of Psychology, Chungang University^{**}

Department of Home Management, Ewha Womans University^{***}

The present study was designed to explore gender differences concerning avoidance and anxiety characteristic of adult attachment, romantic love, and personality traits. Questionnaires on the Adult Romantic Attachment, STLS and Big Five traits were administered to 540 undergraduates comprising 270 heterosexual couples. Results indicated that women marked than men higher scores on anxiety, with no gender difference in avoidance. Also, men and women had similar scores on each subscale of STLS which had a negative correlation with avoidance and anxiety. Self ratings and meta-perceptions of Big Five were higher for men than for Women and vice versa for ratings of ideal and current partners. Further, each of Big Five, regardless of the type of perceptions, had a negative correlation with avoidance and anxiety. For men, however, those correlations with avoidance were larger than those with anxiety. For women, self-peceptions and meta-perceptions of Big Five related more to anxiety than avoidance, whereas it was reversed for ratings of ideal and current partners. These gender differences were discussed in the contexts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s.